



[고독사 실태와 인식] 고독사 사망자, 남성·5060 비중 높아

-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'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'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다. 최근 고독사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.
-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3,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.04명이었고, 남성(84%)이 여성(16%) 대비 5배 이상 많았으며, 연령별로는 5060세대가 전체의 62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.
-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41%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, 시도별로 보면 '경기'가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고독사 사망자 현황 (2023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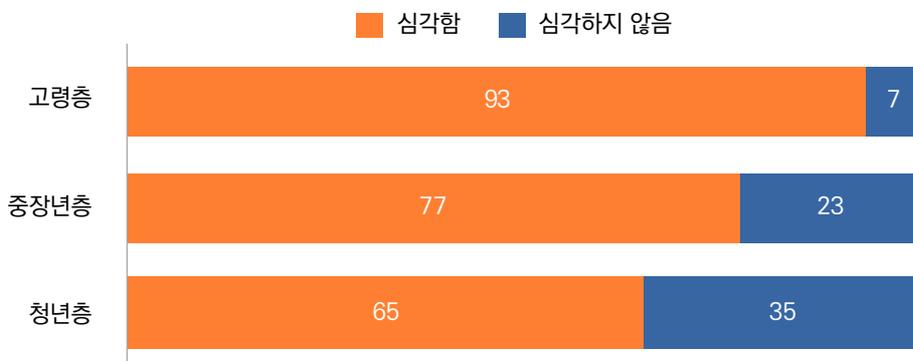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, 2024.10.18.

우리 사회 고독사 문제 심각성,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아

- 고령층, 중장년층, 청년층 3개 계층을 제시하고, 우리사회에서 각각의 계층의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.(한국리서치, 2024.10.) 그 결과, '고령층'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93%로 매우 높았으나, '중장년층'과 '청년층'도 각각 77%, 65%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. 고독사가 이제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.

[그림] 연령계층에 대한 고독사 심각성 인식*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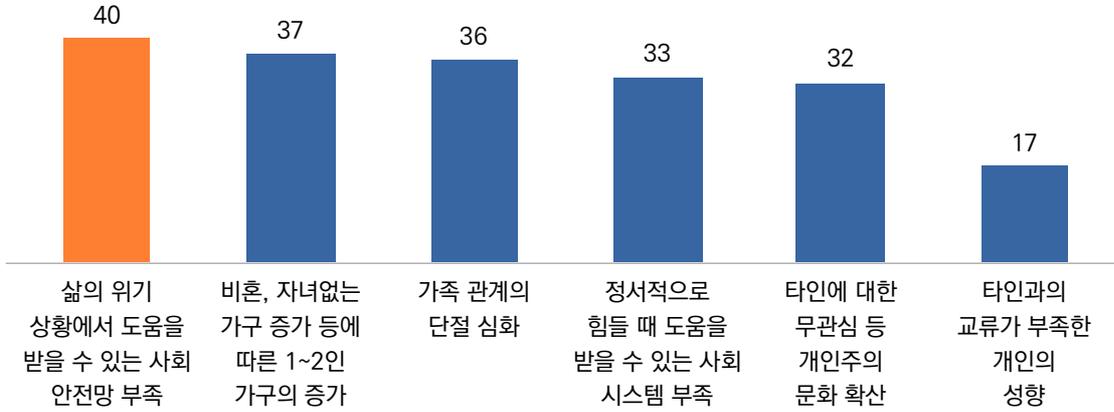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쓸쓸한 죽음, 고독사', 2024.10.30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08.12.~08.14.)

*4점 척도 질문으로 (매우+약간) 심각함, (전혀+별로) 심각하지 않음 비율임

고독사의 주요 원인, 사회 안전망 부족!

-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, '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부족'이 40%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'1~2인 가구의 증가', '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'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고독사 발생 원인 (1+2순위, 중복응답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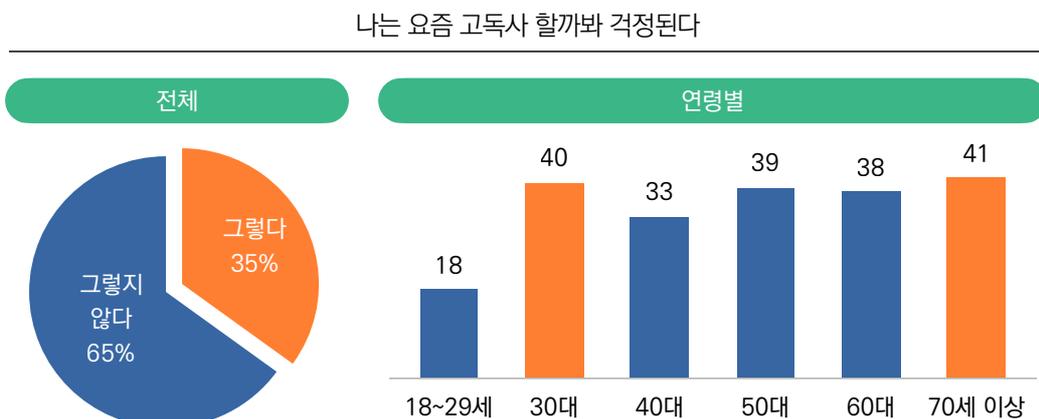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쓸쓸한 죽음, 고독사', 2024.10.30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08.12.~08.14.)

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(35%), 나는 '요즘' 고독사 할까봐 걱정된다!

-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. 나는 '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된다'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,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'그렇다'고 답했고,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40%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독사가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전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이슈로 볼수 있다.

[그림]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('매우+약간 그렇다' 비율*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쓸쓸한 죽음, 고독사', 2024.10.30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08.12.~08.14.)
*4점 척도